



학부모와 함께 하는 성교육 및 또래 성폭력(성희롱) 예방

1. 학부모와 함께 하는 성교육

소아청소년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성에 대한 태도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약 70%정도는 가정에서 부모의 태도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나머지 30%가 의식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교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아이들이 평소 생활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8계명 ■

1. 일상생활에서 가르치자.- 택배 시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가라 등 일상의 위험요소를 교육합니다.
2.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 타인의 몸을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3. 'NO(싫어요!)'라고 말하는 법을 알려준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교육합니다.
4. 집 앞이 가장 위험- 등하굣길, 놀이터 등에서 가급적 혼자 놀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5.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말을 못 할 수 있으니 평소 행동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6. 대부분 가해자는 아는 사람이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 가르칠 때는 아는 사람으로 사례를 듭니다.
7. 신체 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알려줍니다.
8. 다른사람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하도록 교육합니다.

2. 또래 성폭력, 성희롱 예방

▶ 또래 성폭력(성희롱)이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성희롱으로 장난처럼 취급되는 성폭력, 성희롱을 말합니다.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한 장난, 게임, 놀이할 때 친구의 상황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성폭력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래끼리의 장난이라도 상대의 동의가 없는 무분별한 행동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성폭력, 성희롱일 수도 있습니다.

▶ 또래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했다면?

-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기
-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생각 없이 따라 하지 않기
- 불쾌한 느낌이 들면 즉시 그만두라고 말하기
- 피해 상황을 목격하면 용감하게 친구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즉시 선생님께 알리기

▶ 또래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 내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구하기
- 평소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의사 존중하기
- 놀다가 친구가 싫은 표정을 지으면 그만두기
- 과도한 몸 놀이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기(상대방의 경계선 지키기)
- 성적 자기 결정권은 나에게 있음을 알기
-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기

2025. 4. 1.

이 리 남 창 초 등 학 교 장